

메딩골정원의 양평서원

승 호 상

나에게는 건축과 건물을 구분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 합목적성과 시대성 그리고 장소성인데, 특히 장소성은 건축을 예술과도 구분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림이나 조각 혹은 음악도 장소에 어울리는 류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창작물은 작가의 작업실에서 완성이 되며 그 완성된 작품은 장소와 공간을 바꿔가면서 대중과 교류되는 형식이어서, 반드시 특정 장소를 전제로 해야만 나타나는 건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다른 말로 하면 건축은 장소에 국한되며 그림으로써 완성되고 따라서 하나의 건축은 늘 고유하다. 그러니 한 건축은 두 장소를 공유하지 못한다.

메딩골정원의 마스터플랜에 대한 구상이 무르익어 갈 때쯤, 나에게 '서원'을 설계해달라고 했다. 마스터플랜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주어진 땅이 전체부지의 왼편 경계에 면해 있어 관람동선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여겼다. 전해 듣기에는 서양식 정원을 거친 다음에 한국식 정원을 만들어 그 상부에 이 서원의 땅을 만들었다고 하니 외진 곳이라는 뜻이었다.

서원, 이 목적의 건축은 현대의 한국 땅에 거의 소멸되었다. 지금 짓는 서원이라면 아카데미 시설로 여기면 될 듯하지만 구태여 서원이라고 했으니 그런 실제적 프로그램을 넘는 게 있어야 했다. 조선시대 공립교육 기관인 향교와 달리 사립 교육시설인 서원은 천지사방과 사시사철의 지리 지형을 중시하며 한적하고 경관 좋은 곳에 자리 잡았다. 자연과 어떻게 맥락을 유지하는가가 중요한 건축설계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중에서도, 내 젊은 시절의 건축수업에 핵심적 텍스트가 되었던 병산서원은 탁월하다.

안동 시내와는 물론 근처의 하회마을과도 너들대벽을 두고 떨어져 있는 병산서원은 남쪽에 솟아 오른 병산과 그 아래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을 마주하고 완만한 경사의 지형에 앉았다. 주건물인 강의동과 서애 류성룡을 모신 사당, 그리고 관리동, 세 부분으로 구성된 이 건축은 외부에서는 지형에 순응해 있어 평범한 고건축으로 여겨질 뿐 그 탁월성이 짐작되지 않는다. 만대루라는 기다란 건물 하부를 거쳐 마당에 올라, 좌우에 있는 학생들의 거처인 동재 서재를 지나 강의실인 입교당의 마루에 걸터앉아 남쪽을 보면, 비로소 알게 된다. 탁월하다. 볼륨 제로의 마당에 내려앉은 고요함과 만대루의 기둥 사이로 보이는 병산의 풍경은 고고하며, 더구나 시간마다 계절마다 고유하다. 이 위대한 건축을 한껏 배운 나이 든 건축가로서 메딩골에 서원 설계를 요청받았을 때, 감0가 남달랐다.

메딩골 서원의 땅은 완만한 경사지여서 공간의 전이가 자연스러울 수 있었다. 설계당시에 주변에 수목은 아직 조성되지 않았지만 아름다운 풍경이 만들어질 것은 명확했다. 역시 주변을 볼 수 있는 망대가 필요하고 진입은 그 밑으로 하여 아래마당에 접근한다. 이 마당의 동쪽에 연못을 조성하여 인근의 서양정원을 매개하는 공간으로 삼고 물가에 타워를 세웠다. 그 속에서 물을 하염없

이 쳐다보며 머무를 수 있다. 이를 독락의 탑으로 이름하면 어떨까.

아래마당에서 병산서원의 만대루 진입방식처럼 망대에 오를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콘크리트 프레임 사이로 들어온 풍경이 망대의 공간을 매개로 하여 마당으로 이어진다. 아래마당에서 윗마당에 도달하자면 세 개의 계단이 있어 각각의 레벨에서 지형에 따라 높이가 달라지는 내부공간에 접속하게 된다. 위쪽 마당으로 오르면서 건축은 방향을 다소 틀며 아래마당의 동쪽 수변공간으로 시선을 확장시킨다. 그리고 윗마당에 오르면 공간은 둘러싸여 고요에 잠긴다. 오직 배롱나무 한 그루가 미세한 움직임으로 시간의 흐름을 알릴 뿐이다.

내부공간은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데 때로는 평탄하게 때로는 경사로 혹은 계단으로 전체를 순회한다. 그러면서 외부와 반외부 혹은 반내부 그리고 내부공간이 그 경계를 무시하고 넘나들며 공간감을 증폭시킨다. 내부의 공간은 굳이 목적이 없다. 더러는 전시로 더러는 교육과 회의 혹은 공연으로 또는 그냥 머무름으로도 쓰일 수 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비어있다.

콘크리트 프레임으로 외부와 경계를 이루지만 더러는 콘크리트 박스로 둘러싸여도 있는 매스는 어찌면 끊임없이 회유하며 땅을 밀착하는 까닭에 땅에서 발원하여 망대에 이르러 다소 일어난 생명체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타위는 이 매스의 목적지가 되어 급기야 하늘로 뚫려 연결된다.

이곳으로만 이 건축은 끝나지 않았다. 망루의 밑을 다시 나오거나 건물의 서측 절점에 있는 통로를 통해 나와 왼쪽의 길을 따라 오르면 땅에 파묻힌 듯한 또 하나의 건축이 있다. 콘크리트 벽의 틈을 지나가면 물이 깔린 마당에 다다르고 건너편에 작은 내부공간이 있다. 암자인 셈인데, 아무 시설이 없어 무위의 공간이다. 홀로 됨을 즐기는 곳, 독락의 집. 이 독락을 맹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古之賢士 何獨不然 樂其道而 忘人之勢

예로 선비라 함은 어찌 홀로 있지 아니하라 이 도를 즐기므로써 세상권세를 잊는도다”

그런 건축이 되기를 원했다.